

주간 증시 포커스

14일 선물옵션 동시 만기일 '주목'

업종간 차별화 이번주도 지속될 듯

단기 하락폭 큰 은행·증권업 관심

9월 3일 북한에서 규모 5~6으로 추정되는 인공지진이 발생하면서 전세계는 북한이 6차 핵실험을 단행된 것으로 추정하였다....

북한핵실험에도 상대적으로 단기 하락폭이 제한될 수 있었던 것은 지정학적리스크가 국내증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중국이 북한의 핵개발에 대해 UN제제안에 표면적으로 동참을 하고 있지만 실질적인 강력제재에는 미온적이면서도...

만약 북한의 핵실험이라는 변수가 없다면 미국 트럼프정부는 지금보다 훨씬 적극적으로 대중국 무역적자에 대한 해법을...

이번주 14일은 9월 선물옵션 동시만기일이다. 시간이 지나면서 지정학적리스크는 완화되고 있지만 KOSPI 기업의 실적...

지난주 코스피지수 조정 속에서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외국인과 기관 수급이 양호한 종목은 상승흐름을 보였다.

8월 중순 이후 코스닥시장에서 외국인투자자가 순매수세가 이어지면서 코스닥시장(중소형주포함)에 대한 관심도 확대되고...



정계두 <유진투자증권 광주북지점장>

늦어진 추석에... 사과·배·단감 지난해보다 저렴

생육 좋고 생산량 늘어 성수기 대량 출하 예상

추석 청과 가격 동향... 감귤·포도값은 오를 듯

올해는 추석명절 대표 선물상품으로 꼽히는 배와 사과, 단감 등 과일을 지난해보다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10일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에 따르면 올해 추석은 지난해보다 19일이 늦어지면서 추석 전 2주부터 시작되는 성수기에 출하량이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배의 경우 올해 추석 성수기(9월20일~10월3일) 출하량은 지난해보다 23%(2만3000t) 늘어난 7만4000t으로 추정되고 있다.

여기에 과실의 생육도 좋아 대과 출하비중도 증가하면서 도매시장에서 거래되는 신고 상품의 가격은 1상자(7.5kg)당 2만~2만3000원 선

이 될 것으로 분석된다. 이는 지난해 2만3800원보다 낮은 수준이다.

사과도 다양한 품종이 출하되면서 공급량이 증가할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우선 오는 14일까지는 가뭄과 탄저병 등 피해가 큰 탓에 생산량이 줄면서 높은 가격대를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후부터 홍로와 양광, 후지조숙계, 시나노스위트 등 다양한 사과 품종의 생산이 늘어나면서 추석 성수기에 맞춰 한꺼번에 출하, 가격이 안정세로 돌아설 전망이다.

가을철 빼놓을 수 없는 과일인 단감은 가격이 큰 폭으로 하락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여기에 과실의 생육도 좋아 대과 출하비중도 증가하면서 도매시장에서 거래되는 신고 상품의 가격은 1상자(7.5kg)당 2만~2만3000원 선

추석성수기(9월20일~10월3일) 과일 예상 도매가

Table with 3 columns: 품목, 규격, 성수기 예상 도매가. Items include 배, 사과, 단감, 복숭아, 감귤, 포도(거봉).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자료>

40% 상당 감소한 2만3000~2만5000원이다.

지난 8월 높은 가격을 유지했던 복숭아도 재배면적이 늘어난 '유모계' 품종이 출하되면서 생산량이 증가, 자연스레 가격이 하락할 가능성이 크다.

반면, 감귤과 포도의 경우에는 오히려 지난해보다 높은 가격에 거래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지난달 하우스감귤 평균 도매가는 출하량이 증가했음에도 품질이 좋아 전년과 비슷한 1kg 당 5480원 수준이었다.

9월 추석 성수기 물량도 약 4% 많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워낙 품질이 좋고 성수기 수요도 늘면서 가격대는 작년보다 높은 4540원(1kg 당)에 거래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포도의 경우 8월 잦은 비로 인해 피해를 입어 생산량이 크게 감소한 상황이다. 더욱이 9월에 출하될 포도는 적은 일조량에 착색·숙기가 지연되면서 전년보다 품질이 좋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추석 성수기 거봉의 2kg짜리 1상자 도매가는 전년 8563원보다 높은 9000~1만1000원에 형성되고, 캠벨얼리 품종은 5kg짜리 1상자 1만3101원에서 1만5000~1만7000원으로 전망되고 있다.

KREI 농업관측본부 관계자는 "사과·배·단감 등 대표적 추석 과일은 성수기를 앞두고 출하량이 증가하는 추세"라며 "반면 계절과일인 포도와 복숭아는 추석 1주일 전 출하 물량이 집중될 것으로 예상돼 추석 하루 전 가격이 가장 높게 형성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박기용기자 pboxer@kwangju.co.kr



지난 8일 '구구데이'를 맞아 농협하나로마트 남양점 앞에서 열린 닭고기 소비촉진 행사에서 이흥목 농협전남지역본부장과 닭고기자조금관리위원회 등 관계자들이 아이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닭고기·계란 소비촉진 행사

농협전남지역본부

농협전남지역본부(본부장 이흥목)는 지난 8일 '구구데이'(9월9일)를 맞아 닭고기자조금관리위원회와 공동으로 닭고기·계란 소비촉진 행사를 진행했다.

이날 무안군 삼향읍 농협하나로마트 남양점에서 열린 이번 행사는 축산물 소비가 줄어들고 있는 축산농가를 돕기 위해 열렸다. 닭고기와 계란의 우수성과 안전성을 널리 알리기 위한 무료시식과 할인행사가 함께 이뤄졌다.

구구데이는 닭을 불러 모을 때 내는 소리(구구)에서 착안해 우리 닭고기를 많이 먹자는 취지로 농협에서 만든 토종 기념일이다. 지금까지 15회째 홍보활동을 전개해 오고 있다.

이흥목 본부장은 "구구데이를 맞아 영양 많고 안전한 닭고기와 계란을 맛있게 먹고 앞으로 우리 닭고기를 더 사랑해 달라"고 당부했다. /박기용기자 pboxer@kwangju.co.kr

aT, 이스탄불식품박람회 할랄인증제품·건강식품 출시

16개 업체 출전 농식품 상담도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사장 여인홍)는 지난 7일부터 10일까지 터키 내 최대 규모를 자랑하는 '2017 이스탄불식품박람회'(WFI 2017)에 참가했다.

올해로 25회째를 맞는 이번 박람회는 다양한 나라의 바이어가 방문하는 식품전문 B2B 전시회다.

aT는 지리적 영향으로 유럽과 지중해 그리고 아시아, 중동, 발칸, 러시아 시장까지 모두 아우르고 있는 동서양 무역의 중심지 터키에서 한국관을 운영, 총 16개 업체가 출전해 우리 농식품

에 대한 전시·상담을 추진했다.

aT는 최근 '웰빙·할랄·프리미엄'이라는 터키 내 식품시장 추세에 맞춰 홍삼제품과 김치, 인삼 등 '건강식품'과 치즈 스틱 등 '할랄인증제품', 천일염, 해조샐러드와 같은 '프리미엄제품'을 출시해 한국식품에 대한 브랜드 이미지를 알렸다. /박기용기자 pboxer@kwangju.co.kr

또 특별홍보관을 만들어 전락품목과 히트상품을 집중 홍보하고, 차와 커피를 즐기는 터키의 문화적 특성을 고려하여 한국관 입구에서 홍삼차, 생강차 등의 한국 전통차를 선보였다.

백석 aT 식품수출이사는 "터키는 인구의 98%가 무슬림으로 할랄인증 제품 등 프리미엄 제품 개발과 전시회 참가 지원 등을 통해 현지 바이어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기용기자 pboxer@kwangju.co.kr

Real estate advertisement for k-land, featuring property listings in Damyang and Dongguk, and contact information for sales and leasing.